

## 다시 ‘민족’을 ‘사상’할 수 있을까?

[서평] 윤영실(2018),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아연출판부, 623쪽.

심 희 찬\*

### 1. 최남선과 윤리학

저자가 보내준 책을 처음 받아보았을 때 우선 필자는 제목에 조금 놀랐다. 표지에는 아무런 부제 없이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이라는 글자가 특별할 것 없는 사진과 함께 굵고 크게 적혀있었다. 문학전공자의 연구서치고는 제목이 다소 수수해보였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제목 안에 짧은 서평으로는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문제제기들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책의 제목은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된다. ‘육당 최남선’, ‘식민지’, 그리고 ‘민족사상’이다. 6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 안에서 이 세 가지 층위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펼치기 위해 몸부림친다.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세 가지 층위를 묶어주는 키워드가 ‘패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분석대상은 제목이 풍기는 분위기와 달리

---

\* 원광대학교 HK 연구교수

최남선이나 식민지, 혹은 민족 그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경험한 ‘패배’의 ‘사건성’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패배’란 성공/실패, 성취/상실 같은 대개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패배’는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기준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초월하려는 몸부림, 이미 선언된 패배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를 오롯이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사유를 낳고자 하는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책은 대단히 윤리적이다. 그들의 ‘패배’를 실증, 분석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패배’의 자리에 머물면서 함께 고민하는 가시밭길을 걷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최남선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 가운데 진정 윤리학적 질문이 있었던가? 저자의 오랜 고투와 번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책은 지금까지의 최남선 연구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최남선과 윤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열어젖힌다.

필자 역시 최남선에 관해 한국과 일본에서 서너 개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저 무거운 ‘패배’ 앞에서 함께 고민하는 일이 두려웠고, 언제나 예상 가능한 결론을 적당히 내리면서 피할 수 없는 물음을 피하는 일에 급급했다.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최남선 연구자’로 소개한 적이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책의 결론 부분에 인용된 소설 구절이 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 2. ‘패배’의 유토피아

그런데 최남선과 식민지, 민족사상은 대체 무엇에, 어떻게 ‘패배’했다는 것일까? 우선 최남선의 ‘패배’를 보자.

바다를 향해 겁 없이 나아가는 '소년'처럼 맹목적으로 근대를 추구했기에 패배했고, 식민화된 근대를 넘기 위해 고대의 신화 세계로 성급히 비약했기에 다시 패배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의 죄인'(대일 협력)이기에 패배했고, 탈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이라는 죄인'(민족주의자)이기에 거듭 패배했다. 제국의 근대를 '모방'하여 제국을 넘고자 했으나 패배했고, 제국의 '국민'이 되어 식민지 민족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패배했다. 제국의 학지(學知)를 통해 배운 근대과학과 지식으로 조선민족의 견고한 '토대'를 놓고자 했으나 패배했고, 신념과 신앙으로 민족의 '토대-없음'을 단숨에 뛰어넘고자 했으나 또 패배했다. 민족주의적 신념이 민족의 토대없음과 제국의 압도적 힘에 부딪쳐 내파(內破)되었기에 패배했고, 민족의 초극이 식민지의 '민족' 차별이라는 현실이 엄존하는 한 불가능했기에 패배했다.(p. 18)

패배, 패배, 패배. 이 책은 최남선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한 일종의 '평전'인데, 저자는 그의 모든 삶과 노력을 '패배'로 규정한다. 이것은 최남선을 '친일파'나 '변절자'로 단죄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혹한 언술이다. 저항과 친일, 혹은 그 언저리 어딘가라는 일체의 논리적 타협을 거부하고 최남선의 사상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이다. 타협은 새로운 사유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저자는 최남선의 존재를 '패배' 속에서 사유하기 위해 모든 타협의 가능성을 끊어놓는다. 그리고 이 커져이 쌓인 '패배'의 기록은 식민지의 '패배'와 중첩된다.

힘의 열세로 식민지로 전락했기에 패배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식민지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다시 패배했다. 식민지를 가깝게 들여다 볼수록, 폐허의 풍경만이 도드라져 보인다. 비타협적 저항을 이어갔던 이들은 망명지를 떠돌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식민지의 일상을 살아갔던 이들은 누구나 식민권력에 일정 정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중의 역량은 소진되고, 사상은 빈약하며, 사회는 활기

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식민지라는 암울한 시대의 기억을 망각 속에 묻어놓고, 민족적 저항의 기념비들을 세웠다. 또 누군가는 식민지 민족이라는 이름에 얽힌 추문을 들추어내고, 한때 근대의 개척자, 민족의 위인으로 숭앙받던 이들이 제국을 ‘모방’하고 제국에 ‘협력’했던 전과를 폭로하는데 힘을 쏟는다.(p. 19)

식민지라는 ‘패배’의 기호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위 인용문의 후반부는 탈식민국가 역사의 과거의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식민지의 문제는 피식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식민성으로부터의 탈피란 근대 자체의 극복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미완의 과제”인바, 이는 “오로지 식민성을 동반함으로써 근대 세계를 구성해왔던 인류 앞에 놓인 물음”이기 때문이다(pp. 18-19).

과연 최남선이 걸어간 도정에는 식민지근대의 모순과 역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는 무너지는 전통들로부터 빠져나오려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예되는 미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중인으로 태어난 최남선은 근대가 가져온 신분제의 해체 덕분에 변모하는 지식사회를 선두에서 이끌며 주목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근대는 식민지도 함께 가져왔다. 제국대학을 위시한 압도적인 학지의 힘 앞에서 짧은 유학경험밖에 가지지 못한 최남선은 작은 존재였다. 새로운 시대의 중핵이 되어야 할 ‘국민’은 ‘신민’이 되었고, 주권과 영토가 없는 ‘정부’는 ‘임시’일 따름이었다. 신앙은 ‘종교’가 되지 못한 채 ‘유사종교’로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의 ‘정사’는 제국대학의 일본인 교수들이 편찬한 ‘조선사’에 자리를 내주었다. 식민지근대의 엄혹한 현실에서 최남선은 전통적인 ‘양반’이 될 수도 없었거니와 근대시민국가의 ‘부르주아’가 될 수도 없었다. 그는 늘 한발 빨랐지만, 바로 그 이유로 늘 한발 늦어야만 했다. 붕괴하는 전통과 오지 않는 미래 사이에 낀 과도기적 인간에게 주어진 자리는 ‘패배’밖에 없었다.

저자의 사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들이 패배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식민지 근대와 맞설 수밖에 없다.”(p. 20) 저자는 보편을 참칭하는 서구적 근대의 균열과 모순을 식민지의 ‘패배’ 속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그렇기에 ‘식민지 근대’ 세계에서 식민지란 근대의 어두운 이면이요, 근대적 삶의 가능성의 조건들이 사실상 불가능성의 조건임을 드러내는 균열의 지점이요, 근대 세계의 구조적 결함 너머를 모색했던 이들의 패배의 경험과 사유들이 파괴된 잔해처럼 튀구는 폐허의 장소다. 그렇다면 오늘날 식민지의 민족 사상 연구는 근대의 한계(이데올로기적 봉쇄)에 갇힌 그 협착한 사유의 공간에서 근소한 차이들을 분별하고, 미세한 내재적 균열의 지점들을 감지하며, 그 균열 너머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초월(유토피아)의 가능성들을 ‘구제’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p. 42)

폐허 속에서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토피아 발견하기. 이 유토피아는 질서정연한 근대 세계에서 폐허로 쫓겨난 자들이 꾸는 꿈이다. 그들은 정각에 도착하지 못하고 항상 한발 늦거나 빠른 자들, 그러니까 시간의 이음매에서 어긋나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근대세계의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그 단선적인 연쇄에 포함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절단하는 존재가 된다. 저자는 근대를 극복하기 위해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과 지워진 흔적, 유보된 희망과 공허한 좌절을 ‘패배’라는 이름으로 꼼꼼히 수집한다. 그리고 최남선과 식민지의 ‘패배’를 유토피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도구가 바로 책의 제목에 보이는 세 번째 층위 ‘민족사상’이다.

### 3. ‘민족’의 괴기스러움

‘민족사상’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어째서 ‘민족주의’라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 ‘민족사상’을 내거는가? 책의 제목이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주의’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최남선이 평생에 걸쳐 씨름했던 주제인 ‘민족’을 오늘날 새롭게 ‘사상’하기 위해서 분투한다. 이 책에서 ‘민족’이란 민족주의 혹은 nation이나 volk의 번역어로서의 민족/국민 개념에 회수되지 않는 어떤 투쟁의 장소를 가리킨다. 그것은 제국의 국민과 신민 사이를 동요하면서 근대주권국가의 허구적 보편성, 나아가 인간의 개념 자체를 물음의 대상으로 삼는 실천에 주어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저자에게 “‘민족’이 실제적인 것이냐, 상상적인 것이냐”(p. 32)는 낡은 물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처럼 제국과 자본, 인간이라는 근대세계의 질서에 깔끔하게 마름질되거나 접합되지 않는 어떤 잉여로서의 ‘민족’을 사유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사상’이다.

사상은 탈식민적 사유의 실천이다. 근대적 앎의 배치에서, ‘이론’은 대개 서양의 사유에만 부여되는 특권적 이름이다. ‘이론’은 보편을 자임하지만, ‘사상’은 보편의 균열들을 비춘다. ... 사상은 서구적 보편이 침묵하고 은폐하는 세계의 다른 단면들을 펼쳐낸다. 설명할 ‘이론’을 갖지 못한 주변부의 다른 경험들을 숙고하며, 웅얼거리는 소음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분절하여(articulate) 새로운 ‘말’을 구성한다. 정치적 해방 여부와 무관하게 사유와 말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 식민지기와 포스트 식민지를 관통하는 지적 식민화의 상황이라면, 이론이 되지 못한 주변부의 파편적 사유들에 귀 기울이는 사상 연구 역시 일종의 탈식민적 실천이다.(p. 39)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민족사상'의 개념,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최남선과 식민지를 읽어내는 저자의 분석방식이 매우 흥미로웠다. 탈식민주의, 탈근대의 담론이 유행하면서 그간의 식민지연구는 주로 민족과 거리를 두면서 이루어졌다. 이제 아무도 민족을 변혁과 관련지어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자는 다시 '민족'으로 돌아가서 '사상'하자고 주장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지금까지 흔히 사용되었던 민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민족≠국가의 상황, 혹은 ‘국민/민족’ 개념이 분화된 한국의 특수성은 어떤 면에서 ‘네이션’ 자체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역설과 균열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pp. 146-147)이며 이와 같이 “국가에 완전히 전유되지 않은 틈새”에서 “우리는 ‘nation’이 취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사유할 수” 있다는 설명에서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p. 151).

‘민족사상’에 관한 저자의 분석을 읽으면서 필자는 국가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개념으로 흡수되기 이전, 혹은 그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원초적 에너지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언어와 인식의 세계에 담고자 하는 순간 이미 형태가 변하고 마는 그런 에너지 말이다. 필자는 원초적 에너지로서의 민족 이미지를 일본의 강좌파 맑스주의 역사학자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의 글을 통해 배웠다. 1976년, 안보투쟁과 학생운동이 적군파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막을 내리고 풍요로운 물질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일본에서 이로카와는 「일본내셔널리즘론」을 발표한다(『岩波講座日本歴史 17』近代4, 岩波書店). 당시 TV와 냉장고, 자동차가 각 가정에 보급되고 스포츠와 드라마가 발달하는 풍조 속에서 민족은 이제 촌스러운 이데올로기, 철 지난 유행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로카와는 ‘기민(棄民)’, 혹은 ‘유민(流民)’의 민족주의를 대치시킨다.

이로카와는 메이지시대 끝자락에 조선에 매춘부로 팔려가던 14명의 소녀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직 15살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녀들은 조선

에 도착하기 전부터 밤낮으로 배 위에서 매춘을 강요당했고 결국 12살 소녀 하나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나머지 소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싸늘하게 죽은 시체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주었다.

푸른 잎 무성한 사쿠라이(桜井) 마을에 노을이 진다  
나무 그늘에 말을 세우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본다  
갑옷 아래 소매를 적시는 것이 눈물이나 이슬이나  
...  
별써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끔찍한 폭력 앞에 무방비로 내던져진 어린 소녀들이 부른 이 노래는 천황제의 영속을 갈망하기 위해 근대국가가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창가(唱歌)였다. 그녀들은 조선에 건너간 뒤로도 잔인한 일을 겪었고 결국 실성한 채로 죽고 말았다. 지옥에서 국가의 노래를 부르는 이 소녀들의 민족주의적 감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1931년 천황이 미나마타(水俣)의 질소 공장을 찾았을 때 더럽다는 이유로 가두에서 쫓겨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후 격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미나마타병에 걸렸고 병실에 시찰을 온 고위관료를 만났다. 처음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높은 양반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녀는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더듬거리며 “천, 황, 폐, 하, 만세”라고 외쳤다. 그리고 떨리는 입으로 박자와 음정이 전혀 맞지 않는 ‘기미가요’를 불렀다. 이 ‘괴기스러운 모습’에 고위관료는 꿈무늬를 내뱉었다.

이로카와는 국가가 추동하는 이른바 ‘울트라 민족주의’와 ‘우리들의 민족주의’는 다르다고 말한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폭탄을 끌어안고 미군에 달려드는 부녀자의 모습에서 이로카와는 민족주의의 ‘원풍경’을 본다. 이 ‘기민’의 민족주의는 결코 ‘근대적 지성’으로 재단할 수 없다. 여



기에는 민족의 실체성이나 상상된 공동체가 아니라 괴기스러운 '정념(情念)'으로서의 '민족'이 있다. 나라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이 '민족'의 정념을 개념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근대세계의 질서를 넘어서려는 '민족사상'의 윤리학적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서구의 '이론'을 대신할 수 있는 '민족사상'의 과제를 짚어지기 위해서는 저 정념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할 것이다.

#### 4. '애도'를 위해

수많은 글들과 자료, 선행연구를 상세히 검토하고, 복잡다기한 식민지 근대의 현실 속에서 최남선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이 책은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에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 서평에서 필자는 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일부러 취하지 않았다. 정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는 오히려 이 책이 지닌 사상적 특이성을 감소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전체적인 방법론과 분석개념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책을 읽는 과정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책의 주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서구의 '이론'들을 보면서 오랜 시간 저자가 진정한 삶과 생활의 문제로서 이론과 투쟁해왔다는 점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 최남선을 통해서 서구 이론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다. 사상의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으나 최남선을 학자, 순교자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그의 정치적 배후 및 피식민자로서의 욕망에 대한 언급이 다소 적은 것 같아 아쉬웠다. 사상은 정치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치와 현실사회를 자양분으로 삼지 않는 사상이란 것도 존재할 수 없을 터이다. 또한 「송막연운록」을 중요한 텍스트로 분석하고 최남선이 '난민'의 존재를 깨달았음을 논하다가, 학병

권유연설을 검토하는 장면에서는 그가 국민국가에 죽음을 바치는 ‘달힌’ 민족주의를 역설적으로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의문들은 어쩌면 최남선 연구자로서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전근대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시간을 살았으며, 제국일본의 거의 모든 공간을 왕래하고 각종 조직과 정책에 참가했던 그의 사상과 삶을 평판하게 그려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모순과 역설 속에서 살았던 최남선의 삶은 반민특위라는 새로운 국가권력에 의해서조차 “역사의 심판과 상징적 죽음으로 종결되지” 못했다. 저자에 따르면 여기에 그의 ‘진짜 불행’이 있다(p. 587). 죽음의 단죄에도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패배’를 거듭했던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을 저자는 황망한 가슴으로 가만히 ‘애도’한다.